

02 2027학년도 학과·계열

무전공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나

배정 방식을 먼저 보십시오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무엇이 다른가	3
03 어디서 확인하나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**왜 요강에 없는지** — 입학처와 교무처의 일이 다릅니다
- ◆ **배정 방식 세 갈래** — 성적순 · 정원 없음 · 섞음. 어느 쪽이냐로 1학년이 달라집니다
- ◆ **어디서 확인하는가 네 곳** — 입학처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
- ◆ **대학에 물어볼 여덟 가지** — 전화 한 통이면 다 답을 얻으십니다

01 · 먼저 사실부터

요강에 안 적혀 있습니다

「무전공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원하는 과로 갈 수 있나요?」

가장 중요한 질문인데, **요강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.** 저희가 2027 수시 요강 6,482줄을 훑었는데 **무전공 448줄 가운데 배정 방식이 적힌 것은 없었습니다.** 요강은 뽑는 규칙을 적는 문서이고, 배정은 **입학한 뒤의 일**이기 때문입니다.

그러면 어디에 있나. **대학의 학사 안내**에 있습니다. 학칙, 전공 배정 지침, 신입생 안내, 학과 홈페이지 — 대학마다 자리가 다릅니다.

이것이 **무전공의 가장 큰 함정**입니다. 지원자는 요강을 읽고 원서를 씁니다. 그런데 **정작 중요한 규칙은 요강 밖에 있습니다.** 그래서 「들어가서 알았다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

왜 요강에 없는가

요강은 「**누구를 어떻게 뽑는가**」를 적는 문서입니다.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고, 그 안에 **입학 뒤의 일**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.

배정은 **학사**의 일입니다. 학칙과 시행세칙이 정하고, 그건 **입학처가 아니라 교무처 소관**인 경우가 많습니다. 부서가 다르니 문서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.

그리고 **배정 규정은 요강보다 자주 바뀝니다.** 요강은 한 해 전에 확정해 공개해야 하지만, 학칙은 그 사이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. **재작년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지금과 다를 수 있는 까닭**입니다.

그래서 이 편은 숫자가 없습니다

다른 편에는 요강에서 센 숫자를 실었습니다. 이 편에는 **실을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.** 대학마다 다르고 공개 자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.

대신 **확인하는 법**을 드립니다. **무엇을 물을지 알면 답은 전화 한 통에 나옵니다.** 이 편은 그 「무엇을」을 정리한 것입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— 배정 방식이 적힌 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. 배정 규정은 대학별 학사 자료에 있습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배정 방식은 세 가지

대학마다 다르지만 큰 갈래는 셋입니다. 어느 쪽인지에 따라 1학년을 보내는 법이 달라집니다.

방식	어떻게 정하나	1학년에 할 일
성적순	1학년 학점으로 줄을 세웁니다	1학년 학점이 전부입니다
정원 없음	원하면 다 갑니다	고민 없이 고르시면 됩니다
섞음	인기 학과만 정원을 두고 나머지는 자유	어느 과가 제한인지를 압니다

셋째가 가장 흔합니다. 그리고 가장 헷갈립니다 — 「자유전공이니까 자유롭게겠지」로 알고 갔다가 가고 싶던 그 과만 정원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성적순이면 1학년이 고3만큼 중요합니다

이 점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. 성적순 배정인 학교에서는 1학년 1·2학기 학점이 학과를 정합니다. 대학에 붙었다고 한 학기 쉬면 그 한 학기가 4년을 정하는 일이 생깁니다.

거꾸로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. 고등학교 내신은 3년이 쌓인 것이라 바꾸기 어렵지만, 대학 1학년 학점은 새로 시작합니다. 고교 내신으로는 못 갔을 학과에 대학에서 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.

확인해야 할 것은 다섯입니다

배정 시기(1학년 말인가 2학년인가) · 기준(성적인가 지망인가) · 정원 제한이 있는 학과 · 제외되는 학과 · 못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.

이 다섯을 알면 무전공이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다 대학에 물으면 답해 줍니다.

배정 방식의 갈래 나눔은 저희가 대학 학사 안내를 살펴 정리한 것입니다. 대학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목표 대학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.

03 · 어디서 확인하나

네 곳을 보시면 됩니다

Q. 하나 — 대학 입학처에 전화

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. 입학처는 이런 문의를 늘 받습니다.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아닙니다.

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— 「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면 전공은 언제,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집니까? 정원이 걸린 학과가 있습니까?」

입학처가 학사 부서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는 넘겨 준 곳에 다시 물으시면 됩니다.

Q. 둘 — 대학 홈페이지의 학칙·규정

대부분의 대학이 학칙과 시행세칙을 공개합니다. 「전공 배정」「전공 진입」「소속 변경」 같은 말로 찾으시면 나옵니다.

규정은 딱딱하지만 가장 정확합니다. 안내 문구는 바뀌어도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Q. 셋 — 그 학부의 홈페이지

자유전공학부·자유전공학부가 따로 홈페이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거기에 「전공 배정 안내」가 붙어 있곤 합니다.

여기에는 지난해에 어느 과에 몇 명이 갔는지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. 그게 있으면 가장 쓸모 있는 자료입니다 — 어느 과가 붐비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.

Q. 넷 — 대학 설명회에서

설명회에 가시면 이것부터 물으십시오. 교육과정이나 취업률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, 배정 실무는 담당자만 압니다.

특히 「작년에 지망이 몰린 과가 어디였나요」를 물으시면 숫자로 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가장 값진 답입니다.

넷 가운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.

확인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 대학마다 공개 범위와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판단하는 차례와 점검표

확인한 뒤에는 **이 순서로** 판단하시면 됩니다.

차례	물을 것	답에 따라
1	가고 싶은 과가 배정 목록에 있는가	없으면 쓰지 않습니다
2	그 과에 정원 제한 이 있는가	있으면 성적이 필요합니다
3	1학년 학점 을 낼 자신이 있는가	성적순이면 이것이 전부입니다
4	못 갔을 때 차선 이 받아들일 만한가	아니면 학과로 지원하십시오

4번을 꼭 세워 두십시오. 무전공은 「원하는 과에 갈 가능성」을 사는 것이지 보장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. **차선이 건널** 만하면 좋은 선택이고, 아니면 위험한 선택입니다.

대학에 물어볼 여덟 가지

☐ 전공 배정은 **언제** 이뤄지는가

☐ 기준은 **성적인가 지망인가**

☐ 성적이라면 **어느 학기까지** 보는가

☐ **정원이 걸린 학과** 가 있는가 — 어디인가

☐ **제외되는 학과** 가 있는가

☐ 지난해 **지망이 몰린 과** 는 어디였는가

☐ 1지망에서 **떨어지면** 어떻게 되는가

☐ 배정 뒤에 **바꿀 수** 있는가

이 여덟을 물으면 **전화 한 통에 대개 다 답을 얻으십니다.** 그리고 이 답이 원서를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이건 컨설팅으로 사실 정보가 아닙니다.** 배정 규정은 **대학이 답해 주는 것**이고, 그 대학 담당자보다 정확한 사람은 없습니다. 상담에서 「무전공은 이렇습니다」라고 **일반론으로 말하는 곳**을 조심하십시오 — **대학마다 다른 것이 이 주제의 전부**입니다. 전화 한 통이 상담 한 시간보다 정확합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배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배정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

학교마다 다릅니다. 그래서 물어보셔야 합니다.

흔한 방식은 **2지망·3지망을 함께 적게 하는 것**입니다. 1지망에서 밀리면 2지망으로 갑니다. 이 경우 **2지망을 무엇으로 적느냐가 실제로 중요**해집니다 — 많은 학생이 1지망만 생각하고 2지망을 대충 적습니다.

제적이나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딘가에는 배정됩니다. 다만 그 「어딘가」가 마음에 드는가가 문제입니다.

그러니 원서를 쓰기 전에 「최악의 경우 어느 과일까」를 그려 보십시오. 그 과에 다닐 수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.

Q. 전과와 무전공 배정은 다른가요?

다릅니다. 그리고 이 차이가 무전공의 값입니다.

전과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다른 과로 옮기는 것입니다. 대개 **정원의 몇 %**로 제한되고, 성적 요건이 붙고, 받는 과가 안 받으면 못 갑니다. **문이 좁습니다.**

무전공 배정은 애초에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. 전과보다 문이 넓은 것이 보통입니다.

그래서 「**학과로 들어가서 전과하면 되지**」와 「**무전공으로 들어가서 배정받자**」는 난이도가 다릅니다. 뒤엣것이 대체로 수월합니다.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기 학과는 무전공 배정에서도 정원이 걸립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무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**요강에 없습니다. 대학에 전화 한 통**이면 알 수 있고, 그 한 통이 4년을 정합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와 대학 학사 안내를 살펴 정리한 것입니다. **배정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.** 반드시 목표 대학에 직접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이나 배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